

100km 달려 온 약혼남, 건물 깔린 연인 구조

터키 지진현장 '기적의 생존' 잇따라 사망자 279명 ... 한적 10만달러 지원

터키 동남부 지진 피해현장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기적과 같은 생존자 구조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 피해지역인 에르치쉬 군(郡)에 거주하던 굴 카라코반(여·25)은 24일(현지시간)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에 갇힌 지 1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에르치쉬 군 주민 알친 아케이는 6층짜리 건물 더미에 깔려 다리를 다쳤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다. 결국 아케이는 고립된 지 20시간 만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갇혀있던 아이 2명과 성인 1명의 목숨까지 구할 수 있었다.

반 시의 한 건물에서도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에게 자신의 생존 소식을 알려 구조작업이 시작됐다. 건물과 토사 더미에서 연달아 구출된 어린 생명은 지진으로 무너진 어른들의 마음에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반 시의 한 구조대원은 "1시간 만에 7명을 구해냈다. 생존자 중에는 한 살배기 아기도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무너진 인터넷 카페 건물 잔해 속에서 세 살배기 남아가 발견되는가 하면, 토사 더미에서 16세 된 소녀가 한하게 웃으며 구출되기도 했다.

구조대원은 그러나 "내일이면 이런 희망도 끝날 것"이라며 구조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규모 7.2의 강진으로 에르치쉬 군에서 약 170명과 반 시에서 95명을 포함해 모두 279명이 사망하고 1천300여명이 부상했다. 또한 지진 피해지역에서 건물 약 970채가 붕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강진으로 고통받는 터키의 이재민 구조를 위해 긴급구호자금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터키 적십자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 구조대원들이 25일 터키 동부 밴주(州)에서 규모 7.2의 강진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더미에서 포크레인과 구조구를 이용해 생존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 비준 협조해 주세요”

李대통령,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 보내기로

외투위, 통상절차법 처리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 같은 서한 발송은 여권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한미 FTA 대국민 연설'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이 일단 무산

된 만큼 조만간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서한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상원이 의사규칙을 개정해 한미 FTA에 대한 본회의 토론타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밟는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절차는 갖춰놓고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서한은 현재 문안 작성 중에 있으며, 문안 작성이 끝나면 대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명 '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정부가 통상절차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이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퇴임후 가난한 사람 성공 돕겠다”

李대통령 영문자서전 내달 1일 미국서 출간

“남은 재임 기간 대통령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늘 생각하며 봉직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 자서전 ('The Uncharted Path')이 오는 11월 1일 미국에서 출간된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신화는 없다' 등이 영문판으로 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과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과 퇴임 후 구상이 처음으로 소개됐다.

이 대통령이 시장직에 출마했을 때는 26일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만큼이나 치열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38살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후보였다”고 떠올리며 “20~30대가 지지했고,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늘 1~3% 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들은 대중인기보다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내놓은 청계천 복원 구상이나 대중교통 체계 개선 구상이 인정받았다”고 적었다.

2006년 시장직을 마치고 한 개인으로 돌아온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시선을

고정하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됐다고 기술했다. 취임 선서를 마친 이 대통령은 자신이 현대 건설 재직 시절 지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회고했다. 집무실의 커다란 나무 책상에 앉은 이 대통령은 “세계 13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업 CEO나 시장을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자신에 대해 회고했다.

2013년 임기를 마치는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구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50년 전에 겪은 것처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 치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 과학자와 음악가, 기술자, 기업가,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안부, 전관예우 금지대상 축소

소령·4~5급 공무원 제외

중령 이상만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등 전관예우 금지대상 군인의 범위가 입법예고 때보다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관예우 금지대상 등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역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공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군인 중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의뢰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연합뉴스

美·日·獨서 '北규탄' 동시집회

집단학살방지 협약 기념일 12월 9일 열려

인권과 종교탄압, 정치범 강제수용소 운영 등 북한 당국의 비도덕적 정책을 규탄하는 세계인들의 집회가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12월 초 동시에 열린다.

'N.K LIBERATION PRAYER NETWORK(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 모임)'은 25일 언론인 등 북한문제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보낸 영문 이메일에서 “유엔의 '집단학살방지 협약' 체결 기념일인 12월9일 미국, 일본, 독일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외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는 이 단체의 과거 활동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개설한 'Stop Genocide in North Korea(북한, 집단학살을 멈춰라)'에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총 942명이 가입해 있다.

이 단체는 “이번 집회는 온갖 방법으로 유엔 협약을 위반하는 북한에 항의하는 국제적 호소”라고 밝히고 “(미국, 일본, 독일 이외) 전 세계 북한, 중국 공관 앞에서도 집회를 전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 탄생

안전위 공식 출범... 핵 안보 등 총괄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도입된 지 반세기만에 처음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이 탄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국내외의 원자력 사고에 대비

위원회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핵 비확산 등과 관련된 정부 업무 전반을 맡아 총괄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또 국내의 원자력 사고에 대비

한 방사는 재난관리 체계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체계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장관급)은 강준순 서울대 명예교수, 부위원장(차관급)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임명됐다. 비상임위원 7명은 법률·인문사회·과학기술·공공안전·환경·보건·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옛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소속 46명을 주축으로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된 사무처는 위원회 실무를 맡는다. /연합뉴스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호남지역 출발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5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수,토)]

상해,항주,소주 4일	419,000원
상해,항주,황산 4일	479,000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579,000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49,000원

JAU+ 고품격여행이란?
자유투어가 혼을 담아 새롭게 만든 고품격상품으로 알찬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함!!

- 1.전 지역국적기 이용(특수상품제외)
- 2.차별화된 고품격호텔
- 3.출발보장에 대한 여유
- 4.풍격있는행사(최대25명)
- 5.10년이상 베테랑 전문인솔자 (일부상품제외)
- 6.지역에 따라 엄선된 특식
- 7.소평방문에대한 부담감 최소화

동남아

NO.1 여행지* 방콕/파타야5일	759,000원~
스파&웰빙* 푸켓5/6일	609,000원~
신들의 섬* 발리5일	1,099,000원~
등급 최강* 세부4/5일	649,000원~
럭셔리호텔+화이트비치* 보라카이5일	1,430,000원~
럭셔리 앙코르왓* 베트남/캄보디아6일	699,000원~

중 국

VIP리무진-천년고도* 북경/만리장성 4일	639,000원~
VIP리무진-동방의진주*상해/항주/소주4일	599,000원~
무릉도원 * 장가계/원가계/천문산 4/5일	999,000원~
천하명산 * 황산/서해대협곡/취운천 4/5	749,000원~
노티/노읍선/유가포함 계림+4대 공연5일	1,249,000원~
천년고도 서안/빙하용/진시항릉 4일	999,000원~

일 본

가을단풍여행 NO.1* 북해도일주4일	849,000원~
도롯고 단풍여행*오사카/나라/교토3일	699,000원~
동양의 하와이-4인출발*오키나와3일/4일	799,000원~

유럽

유럽 핵심3국* 서유럽3국(프,스,이)9일	3,390,000원~
유럽 핵심4국* 서유럽4국(프,스,이)10일	3,490,000원~
비엔나 왈츠체험 * 동유럽5국9일	2,690,000원~
형제의 나라* 터키완전일주9일	2,490,000원~

무안공항출 베트남/캄보디아6일
12/28~1/22일까지!!
\$ NO팁, NO옵션, ALL포함\$
단 6회 1,499,000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11월~12월 출발기준

동남아

방콕/파타야5일	399,000원~
세부 4/5일	349,000원~
푸켓 5/6일	459,000원~
베트남/캄보디아6일	649,000원~

중 국

북경 상해 계림 장가계	269,000원~
	249,000원~
	599,000원~
	649,000원~

유럽

서유럽6국 12일	2,290,000원~
서유럽4국 9일	1,690,000원~
그리스+터키 9일	1,890,000원~
터키완전일주	1,190,000원~
동유럽6국9일	1,690,000원~

남태평양

시드니완전일주6일	1,190,000원~
호주/뉴질랜드8일	1,690,000원~
호주/뉴질랜드 10일	2,290,000원~